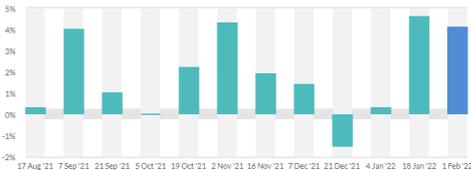




[가격동향] GDT 유제품 가격 4.1% 오르며 연속 상승세

- 원유생산량 감소 및 전지분유 가격 상승이 주요인

Change in GDT Price Index



Summary of Results

| | | | |
|--|--------|---------------------------------|--------------------|
| Number of Winning Bidders | 111 | Number of participating bidders | 16 |
| Number of Bidding Rounds | 16 | 162 | Quantity sold (MT) |
| Duration of Trading Event (hours:mins) | 2:18 | Quantity sold (MT) | 28,463 |
| Minimum Supply (MT) | 27,295 | | |
| Maximum Supply (MT) | 31,963 | | |

지난 2월 1일 실시된 GDT(세계유제품경매)에서 유제품 가격이 전주 전 대비 4.1% 상승하며 4%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지수 또한 1,455 포인트로 전장대비 5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지분유가 전장대비 5.8% 오른 톤당 4,324달러(약 520만원)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버터가 톤당 6,359달러(약 777만원)로 3.3% 오르며 그 뒤를 이었다.

체다치즈는 2.4% 오른 톤당 5,684달러(약 684만원)를 기록했고, 탈지분유도 톤당 4,051달러(약 487만원)로 전장대비 2.1%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관계자는 뉴질랜드를 비롯한 주요 원유생산국에서 생산비 상승, 기상 악화 등의 요인으로 생산량이 계속 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제품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전지분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전반적인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출처 : globaldairytrade.info, 2월 1일 >

[지속가능] 아일랜드, 낙농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 구성

-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향상, 탄소배출 저감 등 지속가능 방안 마련



아일랜드 정부가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아일랜드 농업식품해양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30년 식품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특별위원회는 2월 초 첫 회의를 개최해 낙농산업의 경제,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고품질의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낙농가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새로운 낙농가들이 진입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효율적으로 농가들을 지원하고 낙농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1월 31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